

열린 아버지학교 개강 27일부터 7월18일까지

포천시 열린 아버지학교가 6월27일부터 7월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포천시여성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아버지학교는 포천시청과 포천경찰서, 포천교육청, 포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버지학교는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잠시 멈추고 가정을 한번 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열린 아버지학교는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이며 가정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참가회비는 10만원이며 개설장소는 윤길현 환경자원과장(☎538-3250, 010-2765-3252), 실무담당은 양옥자 여성정책담당(☎ 538-2262, 011-9091-9091), 전영진 포천시기록공무원신우회장(☎ 538-3261, 017-210-3662)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삼성생명·심곡2리 도농상생 結緣

포천농협 1社1村 세번째 결실 맺어



깊이유원지에서 삼성생명 보험심사팀과 심곡 2리 주민이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기념하고 있다.

포천농협(조합장 양영찬)은 농촌 사람반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1사1촌 자매결연' 세 번째 결연식을 지난 14일 깊이유원지에서 개최했다.

삼성생명 보험심사팀 직원 30여명과 심곡 2리 주민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도농상생을 다짐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경호 심곡2리 이장의 마을소개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인지 삼성생명 상무이사와의 회 사소개와 인사말, 양영찬 포천농협 조합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조인식, 기념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마을주민이 가마솥을 걸고 장작 불을 지펴 마련한 오찬으로 함께 식사를 한 삼성생명 보험심사팀은 이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구절초밭 제조작업과 하천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경호 이장은 "이번 자매결연이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깊이유원 마을주민들에게 농촌의 향수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인지 상무는 "농촌이 풍요롭지

않은 선진국은 없다"며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삼성생명 보험심사팀은 앞으로 매년 4차례 심곡2리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돕기와 숙원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농산물과 특산물 구매활동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약속했다.

박영남 기자 varanasise@naver.com

포천심터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월드컵의 진정한 의미는 승패가 아니라 하나 되는데 있습니다" 라는 어느 선전의 문구를 들으면서 '참 좋은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느 나라건 큰 경기를 볼 때는 대부분이 혼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응원을 하게 된다.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도 태극전사의 경기를 보기 위해 새벽 4시에 벌어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4거리를 가득 메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흐트함을 넘어 소름끼치는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단순히 우승을 기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프랑스는 세계 최강과의 경기에 그토록 많은 인파가 모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름처럼 모였고 또 한번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이제 우리에게 월드

컵은 단순한 축구경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단순한 승패 차원의 응원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뽐내는 열광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고 이러한 기적 아래 원하고 바라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으로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있다.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하늘에 맡기라는 뜻이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야말로 일을 성사시키는 절대적인 마음자세이다. 결과에 연연해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를 초월한 열연만이 기적을 만든다. 하나 되어야만 기적을 만든다. 이번 월드컵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경북대 이관식 교수 환경의 날 공로상 6월5일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수상



제11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경북대 이관식 교수가 환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평소 환경보전 활동에 나선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서울 예술의전당 사랑방홀에서 개최된 환경의 날 기념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손희만 한강유

역환경청장은 "환경보전이 결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며,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와 실천이 우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평소 환경보전 활동에 나선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한국디자인협회 회장, 한국디자인트렌드연구원 회장, 한국디자인정보 디자인협회 본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6월12일 이른 아침에 새벽종이 울린다. 흑사나 늦잠 잘깨봐 가장 기쁜 새벽 5시에 맞춰놓고 취침에 들어있다. 연 이틀동안 맑은 비가 내려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맑은 하늘 상쾌한 날씨가

정다운 골목 가꾸기에 이어서 아름다운 꽃밭 가꾸기에 포천동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호미를 높이 들었다. 집에서 시키면 관계라도 대련만, 봉사에 참여하다 보니

유가 없다. 위안 남들이 하나, 둘 모 여서

말없이 쓰레기정리도 하고, 포천동사무소에서 곳곳에 심어놓은 꽃밭에 풀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비가 온 후라서 조금은 쉬웁듯 했으나 적어도 나에게 있어 전적이었다. 한국아파트 앞을 필두로 일산아파트 앞 길 건너 가드레일 밑, 처음에는 작업이라 일도 많고, 고생들도 많이 했다. 범위가 넓어 소요시간이 약 2시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모두 모여서 하는 말, "언니나 죽을 뻔 했다" 웃으며 흠뻑 성의의 손으로 땀을 흘린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늦게 나오면서 왜 그리 미안해 하는지,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

적적이다. 자원봉사 구석구석 찾아서 능력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구.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그런 단체가 되자고, 서로 다짐한다.

청소봉사, 목욕봉사, 식사봉사, 거리청소, 꽃밭 가꾸기, 유해 광고물 제거하기 등 가지런 않았다. 포천동을 위해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모범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 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구요. 행복하시구요. 화이팅!

아이들 학교 보내고 늦게 나오면서 왜 그리 미안해 하는지,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

도서기금 마련 일일찻집 운영

영중면자치위원회, 신축 꿈나무 도서관 비치

영중면자치위원회(위원장 양주승)는 지난 13일 양문 솔다방에서 꿈나무 도서관에 비치 할 도서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운영했다.

이번 일일찻집 운영은 영중면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영중면 부녀회 및 부녀소방대원 등이 참여해 이루어진 행사로 모금된 5백20여만 원금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 전액을 신축도서관 구입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2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솔다방이 일일찻집을 운영하는 13일 하루 동안 무료로 제공해 그 의미를 더해 줬다.

양주승 자치위원장은 "오는 10월 영중자치센터에 설치되는 꿈나무 도서관에 신간 도서를 구입해 비치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도서 기금마련과 더불어 영중면민 소속감을 통한 단합을 이루는데도 뜻이 있다"고 말했다.

하승민 기자 forme65@paran.com



영중면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양문 솔다방에서 '꿈나무 도서관에 비치 할 도서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운영했다.'

제9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장려상

포천소방서 세화유치원 35명 道결선대회



포천소방서가 개최한 제9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경기도 결선에서 '볼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소방동요로 출전하여 유치부 장려상을 수상했다.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통해 자연스레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조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한 제9회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경기도 결선에서 '볼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소방동요로 출전하여 유치부 장려상을 수상했다.

세화유치원(소울을 송우리 392-13)은 두 달여 동안 어린이가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여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어린이가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칭찬이란 햇볕이 필요하고 한바디의 칭찬은 달았던 마음을 열어 칭찬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이들을 지도하여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밝게 웃으며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병축하고 치열한 경쟁의 별판에서 있다. 예전에는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놓더라도 함께 달려온 학생에게 잠깐 학생이라고 칭찬을 했다. 그것이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었. 정체성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서야 한다는 압박관념으로 모든 미덕이 버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남을 해하게 되고 쓰러진 상태를 일으켜 세우기 "영신이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해 운영위원회 및 각 단체장이 의견을 나눈 결과 심사위원으로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인숙 송우초 학부모회장은 "영신이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해 운영위원회 및 각 단체장이 의견을 나눈 결과 심사위원으로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월세방에서 생활하는 최영신 학생의 가정은 생활비와 병원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월세방 월세도 내지 못해 방을 비워줘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최영신 학생 부친은 섬유공장을 운영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회사는 도산한 상태이며, 생활비와 병원비는 최영신 학생 어머니가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겨우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승민 기자 forme65@paran.com

교통안전 교육

매년 신학기가 되면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교통안전교육이다. 이제 3학년차. 교통안전 교사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 집에서 교육요구가 있을 때마다 동봉서주하며 교육에 나서고 있다.

한 두시간씩 하는 강의로 매번 할 때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느끼곤 한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강조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다.

아무리 올바른 교육을 할지라도 아이들의 모델인 어른들이 실천수범하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

“영신이를 도와 주세요”

송우초 학부모회 등 소아암 학생돕기 일일찻집

지난 16일 송우웨딩홀에서 불우이동 및 소아암에 걸린 최영신 학생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이 운영됐다.

이날 일일찻집은 송우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컵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랍단, 녹색회, 도서회 등 각 단체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송우초등학교 2학년 최영신 학생이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일찻집을 운영해 돕기로 했다. 최영신 학생은 소아암으로 인해 수업을 받지 못해 3학년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최영신 학생 부친은 섬유공장을 운영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회사는 도산한 상태이며, 생활비와 병원비는 최영신 학생 어머니가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겨우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신 학생은 소아암으로 인해 수업을 받지 못해 3학년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최영신 학생은 소아암으로 인해 수업을 받지 못해 3학년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다.

자유 기고

석과불식(碩果不食)

주역(周易) 상구(上九)의 효사(爻辭)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上九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膚 象曰 君子得無 民所載 曰 小人剝膚 終不可用也"

이 구절의 뜻은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 군자는 거머를 얻고 소인은 거처를 앗간다. 군자는 얻는 것이 없으나 백성의 추대를 받게 되고 소인은 거처를 앗기고 끝내 쓰일 데가 없어진다."로 풀이된다.

출중한 과일은 다 먹지 않고 남긴다는 말은 욕심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나눠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옛 사람들은 과일을 딸 때 모두 다 따지 않았다. 몇 알은 반드시 남겨 소우 까치밥이라 하여 새들의 먹이가 되게 했다. 벼도 마지막 끝 부분은 베지 않고 남겨 두어 가난한 이들의 식량이 되게 했다.

선인들의 기린 지혜는 다 먹지 않고 남겨놓는 행위, 그 속에 인정과 희망의 숨겨놓은 뜻이 깃들여 있었다. 일반적으로 분쟁의 발생은 이익을 독점하는 데서 생기게 된다. 또한 그 이익의 독점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우리 사는 세상이 지꾸 험악해지기도 한다. 분쟁의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이익을 남과 더불어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한사람이 백 걸음을 걷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한 걸음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때가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병축하고 치열한 경쟁의 별판에서 있다. 예전에는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놓더라도 함께 달려온 학생에게 잠깐 학생이라고 칭찬을 했다. 그것이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었. 정체성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서야 한다는 압박관념으로 모든 미덕이 버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남을 해하게 되고 쓰러진 상태를 일으켜 세우기 "영신이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해 운영위원회 및 각 단체장이 의견을 나눈 결과 심사위원으로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인숙 송우초 학부모회장은 "영신이 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해 운영위원회 및 각 단체장이 의견을 나눈 결과 심사위원으로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월세방에서 생활하는 최영신 학생의 가정은 생활비와 병원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월세방 월세도 내지 못해 방을 비워줘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최영신 학생 부친은 섬유공장을 운영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회사는 도산한 상태이며, 생활비와 병원비는 최영신 학생 어머니가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겨우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세방에서 생활하는 최영신 학생의 가정은 생활비와 병원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월세방 월세도 내지 못해 방을 비워줘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최영신 학생 부친은 섬유공장을 운영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회사는 도산한 상태이며, 생활비와 병원비는 최영신 학생 어머니가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겨우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승민 기자 forme65@paran.com

목숨 같이 숭상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왜곡된 흐름으로 인하여 서로가 원수가 되고 적어 되는 정신적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망령된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까치밥을 남겨두던 조상들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다. 외세가 침략하여 제일먼저 하던 것이 열매든 씨앗든 가리지 않고 욕심내어 다 먹어치워 버렸던 소인배적 행위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였던 애국지사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반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 내재한 출중한 씨앗은 다 먹지 말고 인정한 양심의 새로운 희망으로 보존 발전시켜야 한다.

위기의 시기, 초겨울 이이진 감나무 가지 끝에 빨간 감 한 개를 남겨놓는 모습, 이 하나 남은 희망은 절대로 따먹지 말고 잘 보존해서 내년에 종자로 사용해야 한다. 군자(君子)는 그 희망을 따먹지 않고 보존하지만, 소인(小人)은 이것마저 따먹어 버려서 후일을 기약하지 못한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크고 아름다운 열매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한다. 그 이유는 군자를 만나면 보존되고 소인을 만나면 스스로 망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서 존재의 필연성을 역설하며 강한 생명력으로 고고한 자세로 바위틈에 생존하는 소나무들도 그 존재의 이유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선산을 지키는 굵은 나무들도 모진 풍파를 이기며 선산을 지키는 강렬함과 의지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생명력의 표현이다.

왕방산에 오르면 정상에 거센 바람과 역경을 이기며 오랜 세월을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가 있다. 북서로 개성의 송악을 넘어 대륙의 기운을 아우르고 동으로 큰 바다의 기운을 가슴에 품은 그 소나무는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굳건한 신의와 자존심을 지키며 끝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한내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기를 부르면서 아리랑고개를 넘는 여유로운 지혜를 생조들의 모습에 찾아 보배로운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왕방산에 오르면 정상에 거센 바람과 역경을 이기며 오랜 세월을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가 있다. 북서로 개성의 송악을 넘어 대륙의 기운을 아우르고 동으로 큰 바다의 기운을 가슴에 품은 그 소나무는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굳건한 신의와 자존심을 지키며 끝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한내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기를 부르면서 아리랑고개를 넘는 여유로운 지혜를 생조들의 모습에 찾아 보배로운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왕방산에 오르면 정상에 거센 바람과 역경을 이기며 오랜 세월을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가 있다. 북서로 개성의 송악을 넘어 대륙의 기운을 아우르고 동으로 큰 바다의 기운을 가슴에 품은 그 소나무는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굳건한 신의와 자존심을 지키며 끝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한내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기를 부르면서 아리랑고개를 넘는 여유로운 지혜를 생조들의 모습에 찾아 보배로운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왕방산에 오르면 정상에 거센 바람과 역경을 이기며 오랜 세월을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가 있다. 북서로 개성의 송악을 넘어 대륙의 기운을 아우르고 동으로 큰 바다의 기운을 가슴에 품은 그 소나무는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굳건한 신의와 자존심을 지키며 끝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한내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기를 부르면서 아리랑고개를 넘는 여유로운 지혜를 생조들의 모습에 찾아 보배로운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왕방산에 오르면 정상에 거센 바람과 역경을 이기며 오랜 세월을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가 있다. 북서로 개성의 송악을 넘어 대륙의 기운을 아우르고 동으로 큰 바다의 기운을 가슴에 품은 그 소나무는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굳건한 신의와 자존심을 지키며 끝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한내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기를 부르면서 아리랑고개를 넘는 여유로운 지혜를 생조들의 모습에 찾아 보배로운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왕방산에 오르면 정상에 거센 바람과 역경을 이기며 오랜 세월을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가 있다. 북서로 개성의 송악을 넘어 대륙의 기운을 아우르고 동으로 큰 바다의 기운을 가슴에 품은 그 소나무는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굳건한 신의와 자존심을 지키며 끝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한내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기를 부르면서 아리랑고개를 넘는 여유로운 지혜를 생조들의 모습에 찾아 보배로운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